데스크 시각

SNS 메르스 괴담에 멍드는 지역사회

김 일 환
편집부국장

페이스북 창을 여니 '광주대병원에 메르스 환자가 격리됐다'는 메시지가 뜬다. 광주 사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금방 알아챌 거짓말이다. 왜냐하면 광주대에는 병원이 없기 때문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소위 메르스를 예방하기 위한 비책이라며 떠도는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글은 정말 황당하기까지 하다. 코에 바셀린을 발라야 한다는 둥 '방마다 양파를 5개씩 갖다 놓으라'는 둥 검증되지도 않았고 근거도 없는 이야기들이 마구 전파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종류의 글 대부분이 전문가발(發)로 위장한다는 것이다. 허위 정보에 정체불명의 출처를 달거나, 개인적인 의견을 전문가 글로 포장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큰 일 있을 때마다 정보에 목마른 이들은 괴담 수준의 글이라 할지라도 별 생각 없이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쏟아지는 괴담·유언비어들이 판단력을 흩트려 그것이 진실인 양 생각을 마취시켜 버리기 때문이다. 한때 TV를 바보상자라 칭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SNS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그럴듯하게 포장된 SNS 글들은 그만큼 파괴력이 크다. 전파력 또한 상상을 초월한다. 이 때문에 현재 계속되고 있는 메르스 사태 속에서 막연한 공포를 키우는데 단단히 한 몫을 하고 있다.

근거없는 이야기 마구 전파

이러다 보니 정부나 지자체의 발표는 믿지 못하는 불신 현상이 증폭되고 있다. 최근 '광주에 메르스 환자 2명 발생' 소동은 광주시가 보건복지부 주소지 분류에 따른 착각이라고 발표했음에도 SNS에서는 음모론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광주시가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를 치르기 위해 숨기고 있다." "병원관계자가 친척인데 어디 어디 병원에 격리되어 있다더라" 등 괴담이 퍼져 나가고 있다. 도하 언론들이 광주 지역은 메르스 청정 지역이라고 확인을 하고 있음에도 쉽게 믿으려 들지 않는다. 광주시도 괴담 확산을 막기 위해 메르스 방역과 관련 일일 브리핑을 하는 등 연일 적극적인 홍보와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그다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60대 확진 환자가 완치되어 퇴원한 보성 지역에서도 한때 막연한 불안감과 공포감에 시달려야 했다. 이 또한 상당부분 SNS에 떠도는 유언비어 때문이었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막연한 공포가 지역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보성군이 나서서 캠페인 등을 통해 지역 경제를 살려보겠다고 애쓰고 있지만 역부족인 것 같다.

모임이나 단체로 연결된 카카오 톡, 밴드 등을 통해 키워진 공포는 다시 초기의 괴담에 살을 붙여 확대 재생산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사실 SNS 괴담·유언비어는 아무런 죄의식이 없이 그저 장난삼아 올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문제는 그런 사소한 장난이 끼치는 폐해가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는 데 있다.

더욱이 이 SNS를 운영하는 회사들은 그곳을 사적인 공간으로 치부, 필터링이나 계몽에는 비협조로 일관하기 일쑤다. 한마디로 돈벌이에 급급, 사태를 방치하면서 괴담의 확산을 막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다.

유언비어 차단 캠페인 필요

결국 괴담의 확산을 막는 일은 고스란히 지역사회의 몫이 되고 있다. 하지만 사이버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 또한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거짓말로 괴담을 퍼트린다고 해도 처벌하기가 쉽지가 않다. 명예훼손·업무 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순 있지만 피해 사실을 특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당장 지자체와 지역 시민단체가 나서 메르스 괴담 확산 방지 캠페인을 펼쳐야 한다는 생각이다. 또 지역 교육청은 SNS의 올바른 사용에 대한 교육을 강화했으면 한다. 학습자료를 만들어 배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괴담 차단에 적극 나서지 않을 경우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은펜칼럼

중국 정시(正視) 하기

김 병 인
서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올해는 한중 수교 23주년이 되는 해이다. 지난 23년 동안 한중관계는 이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국제관계에서 보기 드물게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군사 등 각 분야에서 전방위적으로 많은 발전이 있었고 밀접한 교류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 놀라운 발전이 있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수출국, 최대투자대상국, 제1무역파트너, 최대무역흑자대상국이 되었다. 1992년 수교 당시 64억 달러에 불과하던 양국간 무역총액은 2014년에는 2354.7억 달러로 약 37배나 증가하였다. 현재 한중간의 무역총액은 제2, 3 무역상대국인 미국과 일본을 합친 무역총액보다도 많다. 여기에 홍콩과 대만, 마카오 등을 포함하면 무역액은 더욱 늘어난다. 무역흑자도 대단히 크다. 2014년 한국의 대중수출은 1452.9억 달러, 수입은 900.8억 달러로 한국의 대중 무역흑자가 552.1억 달러나 됐고, 대 홍콩 무역흑자도 250억 달러나 됐다. 중국측 발표에 의하면 수교 이후 대중국 무역흑자가 5000억 달러가 넘는다. 수출로 먹고 산다는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 같이 중요한 나라도 없다.

한중 간의 인적 교류도 엄청나다. 2014년 한국과 중국 간 인적교류가 1000만 명을 돌파했다. 지난 해 중국을 방문한 한국인과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은 각각 410만 명, 633.5만 명이었다. 현재 한국대사관을 비롯한 한국단체들이 추정하는 중국 거주 한국인은 약 100만명 정도나 되고, 한국 거주 중국인도 약 70만 명이 넘는다. 하루에 약 2.7만 명이 한국과 중국을 방문했다. 항공편도 정기노선만 62개 노선에서 516편의 비행기가 날고 있고 비정기노선까지 합하면 매주 약 900편의 항공기가 한국과 중국을 오가고 있다.

한국에서 부는 중국어 열풍도 대단하다. 대학에서도 중국어과는 가장 인기 있는 학과중의 하나이고, 기업에서도 중국어 잘하는 인재를 선호한다. 삼성에서도 입사시험에서 중국어 가산점을 최대 5%나 주어 중국어 잘하는 인재를 우대한다. 중국공자학원도, 중국문화센터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곳이 한국이다.

그런데 중국에 대한 한국인의 호감도는 오히려 그 반대로 역행하고 있다. 각종 언론과 여론조사 기관의 호감도 조사 결과를 보면 1997년 56%(세종연구소), 2002년 55%(조선일보), 2007년 32%(EAI 여론브리핑), 2012년 12%(동아일보)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이 현상을 두고 많은 한중 전문가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중국과 관련된 그릇된 정보로 인해 오해와 편견이 생기고 여기에 언론의 편파보도가 부채질하고 인터넷 악플들이 상처에 소금을 뿌리면서 한중 민간의 혐중, 혐한을 생성해가고 있다고 본다.

중국은 우리의 과거 기억속의 나라가 아니다. 개혁·개방 이후 지난 35년 간 평균 9.8%나 되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그 결과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4억 달러가 넘고 미국의 국채도 1조 2443억 달러(약 1375조원)를 보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한국의 국채도 적극적으로 사들이고 있다. 현재 중국계 자본이 보유하고 있는 한국 국채는 약 16.1조원이다. 미국의 18.7조원에 미치지 못하지만 최근 들어 꾸준히 중국계 자본이 한국 국채를 사들이면서 올해 안에 중국의 한국 국채 보유액이 미국을 앞지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보고서에 의하면 13차 5개년 개혁(2016년~2020년)기간 중국의 1인당 GDP가 급증하여 고소득 국가에 근접할것으로 예측했다. 2020년 중국 1인당 GDP가 1만 달러를 돌파하여 개발도상국에서 부유국가로 거듭나게 되리라는 것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분석이다. 2014년 기준 중국의 1인당 GDP는 7572달러였다. 중국 경제가 앞으로도 상당 기간 고속 성장을 하리라는 것이 보편적 인식이다. 현재보다도 미래가 더 무서운 중국이다.

과거 반세기 동안 한중 양국은 국교가 단절되고 적대적으로 살아왔다. 그러나 지금은 21세기이다. 무엇보다도 이념의 편견에서 벗어나야 한다.

중국은 오래전에 문호를 개방하고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한중간의 불협화음은 거쳐야 할 과정이며 냉정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중국을 너무 모른다. 무엇보다도 정확한 정보로 중국을 정시(正視)해야 한다.

은펜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싣는 코너입니다.

기 고

경제통계 통합조사 적극 협조를 바라며

오 성 영
호남지방통계청 경제조사과장

통계는 국가 뿐만 아니라, 개인의 정책 또는 의사결정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것들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이들 각 통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정밀한 통계자료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활동들은 국가 또는 개인들의 현실과 미래의 운명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 자료의 정확성은 국민과 각 개인들의 신뢰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잘못된 통계자료 생산은 국가 정책 또는 개인들의 의사결정 방향을 의도하지 않은 곳으로 이끌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통계청에서는 2009년부터 매년 국가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도소매업조사', '서비스업조사',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조사', '운수업조사', '기업활동조사' 및 '광업제조업조사' 등 연간조사 6종에 대하여, 종전에는 서로 다른 시기에 실시하던 것을 동일시기에 조사하는 '경제통계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오고 있다. 이들 경제통계는 산업의 구조분석, 국민소득 추계, 일자리 창출 등 정부의 각종 경제정책의 수립 및 평가, 연구기관의 연구·분석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올해는 지난 6월10일부터 7월14일까지 35일간 실시하며, 표본 추출된 전국 38만여 개 사업체가 대상이다. 호남 및 제주지역(광주시·전라남도·전라북도·제주도)은 그 중 약 10%대를 차지하며, 3만7000여 개 사업체 규모이다.

호남지방통계청에서는 관할 지역 조사를 위해 조사인력 350여 명을 동원할 계획이며, 이 중 260여 명의 임시조사원을 특별히 채용했다. 통합조사의 주된 취지는 조사별로 시기를 각각 달리할 경우 2종 이상의 조사가 해당되는 중복사업체에게는 각 조사별로 조사에 응해야 하는 횟수가 늘어나게 되는 부담이 따르므로, 이를 최소화 하고자 한 번 접촉으로 모든 조사를 완료(One-Stop Survey) 하는 데 있다. 아울러 사업체에서 원하면 편리한 시간대에 인터넷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놓는 등 여러 가지로 사업체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사결과는 2015년 11월~12월에 공표된다.

국가통계는 무엇보다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 등을 활용하여 보다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계자료로 작성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통계 작성의 기본원칙이라 할 수 있다.

참고로, 사업체에서 제공해 준 자료는 통계작성 목적에만 사용되고 사업체별 자료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의 규정에 따라 비밀이 엄격히 보호됨을 강조드린다.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체는 다소 불편하겠지만, 최근 개인이나 기업정보에 대한 비밀이 보다 강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과거 어느 때 보다도 열악해진 통계조사환경으로 인해 현장조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사직원을 배려하고, 급변하는 불확실성 시대에 정부가 각종 경제정책을 올바르게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통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다 적극적인 협조와 정확한 응답을 당부드린다.

社 說

거듭된 조직 축소 전당 제대로 운영되겠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총체적 위기에 빠졌다. 얼마 전 김종덕 문화체육부 장관이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의 9월 부분개관을 공식화하더니 급기야 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과(課)단위 사업으로 격하시킨 직제 개편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광주의 신성장 동력이어야 할 문화도시 조성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느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등에 따르면 추진단장 직위는 문체부 과장급까지 격하된다. 또한 현재 문화전당 건립 등 조성사업을 맡고 있는 추진단의 공무원 정원 40명 가운데 32명이 문화전당에 배치되지만 그 나머지 8명과 추진단의 관할 업무인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문화부 대중문화산업과로 흡수된다.

이 같은 문화부 방침은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 문화전당에 배정한 공무원 32명은 당초 알려진 공무원 100여 명에 크게 못 미칠 뿐더러 문체부의 용역 결과인 423명의 10분의 1도 안되기 때문이다. 이번에 또한 문화전당을 이끌 전당장의 직위를 2급 국장급으로 개정한 점 역시 국책사업의 위상에 걸맞지 않다. 국내 최대 규모의 문화기관을 2급 공무원에 맡긴다니 말이 되는가.

이는 국립기관의 기능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물론 문체부는 이에 대해 조만간 신설될 특수법인 아시아문화원을 통해 필요한 인력을 보완하고 콘텐츠 연구·개발·유통 등 주요 기능을 맡긴다는 복안을 제시했지만 내일을 기약하기 어렵다.

문화전당은 광주에 또 하나의 국립미술관을 짓는 게 아니라 아시아의 문화가 교류하는 글로벌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그 위상에 걸맞게 인력과 직제가 편성돼야 한다. 문체부는 문화전당의 설립 취지를 다시 한 번 되새겨 보길 바란다.

광산 월봉서원 담장 붕괴 부실시공 아닌가

월봉서원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있는 조선시대의 서원이다. 조선 중기의 문신이며 성리학자인 고봉 기대승(1527~1572)의 위패를 모셨는데 1578년(선조 11년)에 지어졌다. 고봉 선생은 퇴계 이황과 12년 동안 서한을 주고받으면서 8년 동안 사단칠정(四端七情)을 주제로 논란을 편 편지로 유명하다.

월봉서원은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철폐되었다가 1981년 현재의 모습으로 복원되었다. 서원의 주강당인 빙월당(氷月堂)은 고봉의 고결한 학덕을 상징하는 '빙심설월'(氷心雪月 : 눈 내리는 달밤의 투명한 얼음처럼 맑은 마음)에서 유래한 것으로 광주광역시 기념물 제9호이다.

얼마 전 이 월봉서원에 들렀다가 깜짝 놀랐다. 입구의 담장이 군데군데 허물어져 있거나 붕괴 위험 표지판이 걸려 있었기 때문이다. 뒤늦게 알고 보니 지난 2013년부터 진입로의 전통 토석담장 460m 중 일부 담장돌이 무너져 내렸다고 한다.

서원 입구 전통 담장은 광주시가 지난 2009년 3월부터 2011년 3월까지 18억 원을 들여 서원 내 교육·체험관 등과 함께 만든 시설물이다. 하지만 완공 후 2년여 만에 균열이 발생했다니 부실공사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인근 주민들은 "토석담장 공사가 시작된 직후 서원 임원진 등에게 배수처리 등이 미흡해 담장이 무너질 위험이 크다는 지적을 했는데도 묵살당했다"고 말한다. 설계나 시공상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광산구는 좌·우측 진입로 보수에 3억3000여만 원의 사업비가 들어갈 것으로 보고 광주시에 관련 사업비의 시급한 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월봉서원을 돋보이게 해야 할 담장이 오히려 미관을 해치는 흉물로 전락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담장 보수 작업을 서두르는 한편 당시 공사 담당자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이뤄져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슬갑도적

슬갑도적(膝甲盜賊)이란 말이 있다. 양반집에 들어간 도적이 바지 위에 껴입는 옷인 '슬갑'을 훔쳤는데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 몰라 머리에 쓰고 다녔다는 이야기다. 이수광의 '지봉유설'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글을 훔쳐 자신의 글인 양하는 몰염치를 비판한다.

이수광은 동시대를 살았던 허난설헌의 시가 명나라 시인의 것을 베낀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하며 그런 이야기를 들려준다. 표절의 민망함은 바지를 머리에 쓰고도 모르는 일과 같다고 비판한 것이다.

명문장을 베끼고 싶은 욕망은 어찌 보면 인간의 속성인지 모른다. 삼국사기를 지은 김부식도 숙명의 라이벌인 정지상의 글을 보고는 표절의 마음을 참을 수 없었던 모양이다. 둘은 고려시대 문장으로 쌍벽을 이룬 관계였다.

어느 날 정지상이 "절간의 염불 소리 그치니/ 새벽 하늘빛 맑은 유리로다"라는 시를 지었다. 아침이 오는 풍경을 읊은 이 시를 전해들은 김부식이 정지상에게 이 구절을 빌려주면 나머지 부분은 자신이 채우겠다고 제의했다. 하지만 일언지하에 거절당했다.

자존심이 상한 김부식은 이때부터 앙심을 품게 됐고 묘청의 난이 일어나자 제일 먼저 정지상부터 잡아 죽였다. 이규보는 '백운소설'에서 김부식이 어느 절간의 해우소에서 볼일을 보다가 귀신으로 변한 정지상에게 고환을 잡혀 죽었다는 이야기로 각색해 억울하게 죽은 정지상의 원혼을 달랬다.

양해를 구했다는 점에서 김부식은 그래도 나은 편이다. 남의 글을 마음대로 가져다 쓰는 표절은 이제 국내 문학계에선 흔한 일이 됐다. 그동안 장편소설 '동해'나 풍수소설 '명당', 베스트셀러 소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등이 표절 시비에 휘말려 법정에 갔다.

이번에는 유명 소설가 신경숙 씨가 표절 시비로 사과했다. 신 씨는 표절 지적은 맞는다면서도 절필 선언은 할 수 없다며 문학이란 땅에서 넘어졌으니까 그 땅을 짚고 일어나겠다고 말했다.

'세상에 새로운 것은 없다'는 말이 있듯이 100% 창작은 육체와 정신을 옥죄는 힘든 작업이다. 작가들이 표절의 유혹에 쉽게 빠지는 것은 이해하지만 표절했다면 철저히 자기반성을 하는 것이 먼저다. 슬갑을 훔친 도둑도 민망함은 안다. /장필수 정치부장 bungy@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_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편 집 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정 치 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사 회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